

# 해외의약뉴스

##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강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스프레이(1)

### 개요

최근,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Triamcinolone acetonide)(Nasacort Allergy 24HR)와 플루티카손 프로 피오네이트(Fluticasone propionate)(Flonase Allergy Relief)가 처방의약품에서 OTC로 전환됨에 따라 셀프케어시장에서 비강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볼 수 있다.

비강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알레르기성 비염(Allergic rhinitis, AR)의 네 가지 주요 증상(코의 소양증(nasal itching), 재채기(sneezing), 맑은 콧물(clear rhinorrhea), 코막힘(nasal congestion))을 완화한다. 또한 가려움증(itching), 눈물(tearing), 발적(redness), 숨참(puffiness) 등을 포함하여, 안구증상에 유익한 영향을 보인다.

### 키워드

알레르기성 비염, 비강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알레르기성 비염(Allergic rhinitis, AR)은 미국내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가장 흔한 만성질환의 하나이다. AR의 유병률은 성인 30%, 어린이 40%까지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흔한 알레르기 질환이다. AR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병원을 가지 않는 환자들이 있으므로 과소추정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략 6천만 미국인에게 영향을 주는 다섯 번째로 흔한 만성 질환이다. AR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수면의 질을 감소시키며, 정신적 안녕의 느낌을 줄이는 등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R의 적절한 치료비용은 처방의약품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3.4억이다(AR 환자의 평균 처방건수는 알레르기 없는 환자의 거의 두 배). AR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분 처방의약품과 OTC 제품을 함께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AR의 관리는 약국에서 시작된다. 약사가 AR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 병태생리

AR은 상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비점막 내벽의 염증은 흡입한 공기알레르기항원(aeroallergen)으로 인한 것인데, 일단 항원에 감작되면, 면역글로불린 E(IgE 항체)가 비만세포(mast cell) 표면과 결합하고, 비만세포가 탈과립되어 히스타민(histamine)과 류코트리엔(leukotrienes)과 같은 이미 생성되어 있던 염증 매개물질들(preformed mediators)이 유리된다. 새롭게 생성된 매개물질들(newly released mediators)은 코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여 노출된 지 수분 내에 AR의 징후(코의 소양증(nasal itching), 재채기(sneezing), 맑은 콧물(clear rhinorrhea), 코막힘(nasal congestion) 등)을 야기한다.

알레르기항원에 노출된 지 4~12시간 후에, 일부 염증 매개물질들이 다시 나타나는 후기 반응(late-phase response)이 나타나는데, 즉각적으로 동일한 proinflammatory 반응이 재가동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주된

증상은 심각하면서도 오래 지속되는 코막힘이다.

## 분류

AR은 알레르기항원 노출의 시간적 패턴, 증상의 발생빈도 및 심한 정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시간적 패턴에 따라서는 AR이 특정한 계절에만 발생하는 유형이나 일년내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Seasonal allergic rhinitis, SAR)는 계절적인 변이를 가지고 있어 지리적 위치와 기후 조건에 의한다(나무, 잔디, 잡초 꽃가루(weed pollens), 야외 곰팡이 포자(outdoor mold spores)가 주요 원인). SAR의 증상은 대개 이러한 알레르기 원인이 풍부한 특정 계절에 나타난다.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Perennial allergic rhinitis, PAR)은 대개 실내에서 접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알레르기항원에 기인한다. 일반적인 PAR 알레르기 항원은 먼지 진드기, 바퀴벌레, 실내 곰팡이와 진균류, 동물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사계절 유행하는 꽃가루 등이다.

이러한 분류는 알레르기 증상이 계절적인 꽃가루에 의해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사계절 계속되는 알레르기항원 노출에 의한 것인지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증상의 발생빈도와 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치료법 선택에 있어 더 적절할 수 있다. 증상의 발생빈도에 따라서는 간헐적(intermittent) 알레르기성 비염과 지속성(persistent)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헐적 AR의 발생빈도는 주당 4일 이하 또는 연간 4주 이하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지속적 AR 발생빈도 주당 4일 초과와 연간 4주 초과 발생한 경우로 정의한다.

AR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는 경도(mild) 또는 중증도/중증(moderate/severe)으로 구분된다. 경도 AR은 증상이 있지만 고질적이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이다. 중증도/중증 AR은 증상이 고질적이고, 환자의 수면과 직장/학교에서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끼쳐서, 일상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 관리방법

AR의 증상완화와 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면 장애를 최소화하며, 직장/학교에서의 업무성과를 개선하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다.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원인 환경과의 접촉을 막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환자는 완전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해야만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는 AR 증상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할 것이다. 환자는 약국에서 AR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OTC 의약품으로 항히스타민제(antihistamines), 비만세포 안정제(mast cell stabilizers), 그리고 충혈제거제(decongestants) 등이 있다. 최근에,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Triamcinolone acetonide)(Nasacort Allergy 24HR)와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Fluticasone propionate)(Flonase Allergy Relief)가 처방의약품에서 OTC로 전환됨에 따라 셀프케어시장에서 비강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볼 수 있다.

### ■ 원문정보 ■

[http://www.uspharmacist.com/content/d/consult\\_your\\_pharmacist/c/55886/](http://www.uspharmacist.com/content/d/consult_your_pharmacist/c/55886/)